

<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마가복음11:24 / 새찬송가 88장 (통일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즉 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막11:24).

이 두 번째 믿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도가 응답됨도 저절로 믿어집니다(요15:7).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란 우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둘 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시11:4,5), (마5:43-45).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도래해 있음에도 유보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롬9:29). 그래서 이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벧후3:9).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를 판단하고 다스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할지언정 존재의 질서는 여전히 자식보다 높고 결국 부모는 자식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3.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란 바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레11:45). 비록 우리의 현실이 거룩하게 될 수 없어도 우리는 이상을 품고 항상 그 거룩한 곳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벧후3:10-14). 거룩하지 않은 자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상 또한 이 세상에서의 축복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비록 현실에서는 죄악 된 세상을 떠날 수 없어도 그 이상은 늘 온전한 의가 있는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새찬송가 491장 2절 / 통일찬송가 543장 2절).

이는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린 자는 역설적으로 세상을 얻습니다(막10:29,30).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가 참된 성도들이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마음 바탕 위에 서야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때에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용&실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에 집중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구합시다.